불국사 - 地相과 水勢를 겸비한 터전

- 청운교 · 백운교, 연화교 · 칠보교, 석가탑 · 다보탑등 세계적 구조물 품어 -

경주시(慶州市) 동쪽에는동해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람과 습기를 보라색 구름과안개로변화시켜' 뱉고(吐) 머금는다(含) 는별난이름을가진토함산(745m) 이장중한모습으로서있다. 그리고이산 서쪽 기슭에는우리나라 불교계를대표한다는상징적절로서조화미의극치를이루었다는불국사(佛國寺)가자리해있다.

불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 · 외의 많은 사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수많은 연구논문을발표하여탁월한예술성과심오한종교적구도등을예찬한바있어필자의 무딘 붓으로 더 추가할 상찬의 말이 없을 성싶다. 특히, 불국사의석단인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 연화교(蓮花橋) 등은 대 · 소 자연석을 교묘하게 배합시켜 인공의 조화미를극대화시킨세계적인명구조물로정평이나있다. 돌계단위에는 자하문(紫霞門), 범영루(泛影樓), 안양문(安養門) 등이날아갈듯 수려한자태로 서있어 꿈나라 궁전을 심방한 착각을 일으키게한다. 이절의주전(主殿)인단아한 대웅전과 그 앞마당에 있는 조화미 넘치는 석가탑, 기교를 극한 다보탑은 천년의 풍상을 겪으며 묵묵히 서서 격랑의 지난 세월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며 여러 문루와대웅전, 극락전등을연결해놓은긴 회랑은정제미를더해주고있다.

이 절은 통일신라 전성기라 할 수 있는 35대 경덕왕 때 재상이었던 김대성(金大城)에 의해 크게 중창개수되었다고 한다. 불국사는그동안여러차례중수해원형을 유지해왔었으나임진왜란때완전히소진

(燒盡)된 것을 조선조역대왕들이 조금씩 계속 복구했다 하며, 1968년부터 1973년까지의복원공사로현재의모습을갖추게 됐다.

풍수지리학의견지에서본불국사의중핵(中核) 자리는 대웅전으로, 이 전각은 동 · 서 18.5m, 남 · 북16.8m, 높이1.3m의돌계단위에건립됐다. 전각안중앙의 수미단에는 석가삼존불(釋迦三尊佛)을안치했는데 이 자리가 특대양기명당(特大陽基明堂)의 핵 자리이며 삼존불 좌우에는 과거불과미래불인갈라보살과미륵불이 협시하고 있다. 대웅전 앞뜰에는 서측에 석가탑이, 동측에 다보탑이 있는데 이들 탑이서있는장소또한제법좋은화기명당(和氣明堂) 자리여서경이롭다.

대웅전 북측에는 금동비로자나불을 모신 비로전(毘盧殿)과 관음보살을 안치한 관음전(觀音殿)이 있는데 이 두 전각들도 좋은양기명당에바르게건립했으며, 불국사남쪽사천왕문근처에는근래에와서야 용운(用運)이 도래한 대웅전 자리보다 더 큰특대양기명당이또하나맺어져활용될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불국사 일대가 얼마나좋은 터전인지를 말해주는증좌라 할것이다.

불국사 터는 토함산 정상봉(頂上峰)을 성봉시키기전의우아한삼태봉(三台峰)에서 서남쪽으로 맥이 넓게 퍼져 내려와 불국사 경내의 여러 명당들을 맺어 놓았다. 이 절의 주산(主山)인 삼태봉은 청수단아(淸秀端雅)하며 주산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 내린 산가지들은 불국사 터의 내 · 외 용호(內 · 外龍虎)가돼 취기(聚氣)했고 전면멀리에우람하게서있는금오산은조산(朝山)이되어영접하니주 · 객(主客)이좋은조화를이룬형상이다. 특히, 동동북쪽(艮方)에는 토함산 주봉이정기충만한 모습으로우뚝서있으며, 남쪽(丙方) 산과서로호응하였으니 특대명당터다운빼어난 작국(作局)이다. 거기에다 토함산과 대덕산에서흘러내리는여러 가닥의 물줄기들은 이 절 내백호(內白虎) 밖의불국사초등학교 근처에서 모아져 남천(南川)이된 뒤 반월성을거쳐흘러가형산강과 합류되니 수세또한아름답다. 이런큰형세의지상(地相)과 수세(水勢)를 겸비한 터전 위에 불국사를 건립했으니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사찰로오랜세월동안 번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서광석
건설원가협회회장